

손열 전파 발제(4/23/16)

1. Westad, "The Cold War and the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 냉전 종식후 자료 폭발, 그러나 지식의 진보는 이를 따라오지 않음. 사회변화와 보다 다양한 연구 질문, 다양한 방법론 등장, 이에 따라 지식의 확실성, 완전성에 대한 믿음 감소 (skepticism and contention) → strong need for contextualization

■ 냉전사를 지구적 시각에서 고찰: 냉전의 갈등을 정치군사적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 지성사와 연결하여 인식하려는 시도.

■ 냉전사 연구: 개념의 변화

- 냉전이란 말은 1945년 조지 오웰이 처음 사용. 역사가들은 1940년대 후반 사용 시작. 미국에서는 주로 스탈린의 대결적 정책 의미함. 연합국 스탈린이 연합을 깨고 침략을 하는 행위를 냉전으로 일컬음.

- 이후, 냉전의 원인이 스탈린에서 공산주의로 전환: 공산주의 vs. 그의 적

- New Left, 미국의 책임론: 소련만큼이나 세계 자본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확장

- 1970년대 현실주의 비판: 냉전은 미소 초강대국의 이익 게임.

- 미소 대결 소멸과 서방진영의 이념대결(보수주의)의 쇠퇴와 함께 냉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상

■ 탈냉전기 냉전 연구: 사회사, 문화연구의 지적 추세와 함께 냉전연구에서 관념, 이념, 문화의 역할에 주목하게 됨. 미국중심적 환원주의 극복 노력

- Cold War conceptualism: 갈등의 주체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냉전의 핵심 개념 혹은 관념을 통해 다양한 어젠다 해석, 설명.

- 중국 냉전사: 냉전은 세계의 유럽화(Europeanization)의 장기 과정 즉, 유럽(구미)의 지구적 우위를 보장하는 국제규범과 규칙의 확립과정으로 인식.

- 아프리카: 독립후 사회주의, 소련과의 동맹은 유럽의 경제적, 지적 지배로부터 해방, 사회주의는 신지배계급의 지위를 방어하는 기제로도 활용됨.

- 주변부의 시각 필요: 주변부의 갈등과 냉전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시도, 이를 통해 냉전의 다양한 부분들을 조합하는 필요성.

■ politics and economics

- 19세기 시장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산과 심화가 주기적인 침체와 위기(공황)을 가져온 데 대한 대항으로 국가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장:

- 두차례 세계대전의 결과 국가안보가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았고, 이에 대한 유례없는 강조. 20세기 전반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cohesion, strength,

reach 증가; 냉전은 이를 이어 받음.

- 대전후 신생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미, 소 두 모델 중 택일하는 상황.
- 냉전의 지구화: 유럽제국의 붕괴 후 미소는 탈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경쟁; 미국의 우세, 따라서 냉전은 결국 미소대결이라기 보다는 지구 패권을 향한 미국의 프로젝트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냉전 기간 한결같은 미국의 반대자이자 대안(소수의)의 역할하였음.

■ 과학과 기술

- 과학, 정치이념, 사회구조간의 관계는 복잡적.
- 냉전은 미소간 과학기술 경쟁;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군사력과 경제력, 사회시스템(의료복지)의 우열을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로 간주됨.
- 에너지 이슈: 에너지공급 확대는 산업생산 증대, 군사력 확충, 또한 대중의 경제수준 향상 가져옴, 에너지 확보는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가 됨.
- 과학기술 장려는 학교교육의 확대를 가져옴. 미소는 학교교육을 사회시스템의 중심에 위치시켜 이를 장려함.

■ 문화와 관념

- 냉전기 미소의 문화경쟁은 보편성의 경쟁 (individual liberty, anti-collectivism, market values vs. social justice, collectivism, state planning)
- 양자는 특권, 전통, 가족, 지방 등 전통주의에 대항하는 근대적, 혁명적 대안을 제시
- 미국의 문화/이념이 보다 attractive: 민주주의 요인: 미국의 지배층은 민주정치체제 속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당성을 추구했던 반면, 소련은 정당성 결핍의 문제를 안게 되고 따라서 대중을 두려워하게 됨. 따라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여러 동맹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소련은 대부분 실패.
- 양 이념의 적은 편협한 민족주의자나 비이성적 종교이었고, 따라서 미소는 local elites들이 국가나 종교에 관한 지방적 개념을 타파하도록 협조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후기로 가면서 양국이 오히려 특수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음(Russian particularism, American evangelicalism).
- 냉전 후기로 가면서 선전전, 공공외교는 미국의 승리로 돌아감. 미국의 대중매체가 미국의 삶, 미국의 풍요로움을 전달, 공산권의 붕괴에 일조함.
- 미소의 농촌, 도시 공히 제3세계 삶의 모델이 됨.
- 미소의 프로젝트는 근대 프로젝트, 진보를 약속하였음. 여기서 정치는 전문가의 손에 의한 통치로 귀결된 경향.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은 민주적 통치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소련에서 '민주'란 공산당 통치, 미국 등 서방에서 군사, 무기, 감시, 기간시설 건설 등은 민주적 통치의 영역 밖에 존재.
-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근대성의 약속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켰고, 냉전 하에서 미소는 이 약속을 복원, 실천하고자 하였음 (자유와 사회정의). 미소는 자국의 이념과 제도가 전쟁의 참상과 민족주의적 갈등을 극복하고 근대성을 회복하는 최후, 최고의 희망임을 확산시키고자 하였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타국의 삶에 주입시키고자 하였음. 아이로니컬하게도 세가지 근대 프

로젝트는 냉전이 종식을 통해 실현 -- right to vote, capitalist market, end of colonialism. 이 세 흐름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멸망의 공포심을 통해 인간조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측면 (미래의 두려움, 인류 진보/완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성하였음. 탈냉전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2. F. Romero, "Cold War Historiography at the Crossroads"

■ 냉전사의 탈중심화: 유럽/대서양 → global south; 초강대국 엘리트간 경쟁 → agency 확장

- CHCW as a wide-ranging, inclusive, pluralistic interpretation; 꼬끼리 비유.

- 냉전 개념의 희석? Lawrence Freedman에 따르면 이런 접근법은 마치 1945-1991 지구사를 냉전사로 환원시켜, 냉전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위험성이 있음. 이 둘을 분리해야.

- Anders Stephanson: 협의의 정의로서 총력전에 가까운, 상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절멸을 향한 투쟁 상태; 그러나 이는 미소 양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 "long peace"

■ Jervis: clash of social systems; clash of identity; 양 진영은 '전쟁의 공포'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본원적으로 팽창적이고 위험한 속성을 강조.

- 냉전적 지배란 물질자원의 차원이라기보다 역사변화(vectors of historical change)의 지배 (i.e. 복지, 경제안보, 자주, 독립..),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조정하는 경쟁. 따라서 struggle for hegemony, struggle for mastering change. 그러나, 단지 체제경쟁의 차원 넘어서 준전시적 성격, 심대한 적대감 존재. balance of terror. 이런 점에서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이런 개념에 의해서 유럽중심의 냉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구체적 변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음.

■ usable hierarchies of historical relevance: "making of our times"에 주는 의미, 적실성

- 냉전의 영향과 지구적 변화의 과정 사이의 분석적 분리,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영향 분석 필요.

- 식민지 종식, 신생국가 등장, 인종적 위계가 아닌 인권평등에 의한 대안적 도덕세계 창조, 중국의 부상,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산 등 오늘의 문제들은 냉전에 걸린 문제는 아니었음. 냉전이 이러한 전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음; 냉전이 남긴 것은 공산주의 이념과 제도의 소멸, 미국세력의 전지구적 확산, 그 향후 냉전의 영향에 대한 해석은 변화할 수 있음.

- 제3세계에 대한 냉전의 영향: (1) 서구 강대국간 long peace와 대조적으로 제3세계의 파괴

적 갈등과 전쟁; (2) 냉전의 연구는 군사적 갈등에 편중(베트남전쟁 연구>인도/브라질에 대한 강대국 개입, 경제발전, 비국가행위자 활동...); (3) 주변부, local actor에 대한 관심 취약;

결론적으로 냉전적 적대는 제3세계 갈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악화요인. 탈식민지 엘리트들은 냉전을 활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국가발전 모델 추진, “새로운 정당성의 언어” 창조. 따라서 중심과 주변의 interactive process; 제3세계와 냉전의 근대화이론간의 “momentous, disruptive, transformative encounter”;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탈식민주의와 발전주의간 다양한 관계, 예컨대, 전통의 재구성, 식민지 유산, 초강대국에 대한 저항과 타협, 근대화이론의 적용, 이 과정은 단순한 전파와 수용의 관계 아님.

■ 유럽의 역할

- 냉전은 유럽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종식되었다는 사실 상기; 코끼리의 핵심파트는 유럽
- 냉전은 유럽에서 두 신흥세력의 충돌; 영토분할과 사회경제적 분단, 동맹체제; 국제와 국내 공간의 긴밀한 연계. (containment policy)
- 냉전 종식 역시 유럽에서 기원: 소련의 쇠퇴는 유럽에서 (Helsinki agreement; 헝가리, 폴란드 등과의 네트워크 확산, 동구체제의 한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 연구주제 1: post-Keynesian political economy: 봉쇄-변영-민주적 안정이란 냉전의 삼위 일체 넥서스, 탈식민지 국가에 대한 근대화의 공식, -> 보다 시장중심적 정치경제로 이행 (급진적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의 결속 강화, 국가의 능력 강화 등 고려가 약화됨). 국제제도 역시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행.
- 연구주제 2: 인권의 부상과 정치문화의 변환 관계: 그 중심에는 헬싱키와 카터의 인권외교 뿐만 아니라 좌파가 인권 가치를 포섭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임. 프라하의 봄에 의해 서구 좌파와 소련공산주의간의 관계 절연. 남유럽국가들의 민주화에 의해 소련과 동구는 유럽에서 유일한 독재국이 됨. 동시에 1960년대 후반이래 등장한 environmentalism, feminism, 반핵활동 등은 국가-사회관계 변화시킴(좌파의 국가의존 변화).